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 나타난 인종문제에 대한 관심과 표현*

金 惠 俊**

< 目 次 >

1. 머리말
2. 북미 시안 관심 부족
3. 인종 문제 관심 결핍
4. 인종의 등급화 관념
5. 백인에 대한 기대와 불만
6. 다른 소수인종과의 연대 의식
7. 맺음말

국문제요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는 다음 세 가지가 분명히 드러난다. 첫째, 화인 및 중국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이 등장하는 작품이 그다지 많지 않다. 둘째, 다른 인종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의 비율과 비중이 매우 낮다. 셋째, 인종별로 등장 비율이나 역할 비중에서 큰 격차를 보인다.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서 백인은 대개 권한 내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행사할 만한 지위 또는 부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반면에 유색인종은 사회적 저층에 속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며, 백인 인물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문제적

* 이 과제는 부산대학교 기본연구지원사업(2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釜山大學校 中文科 教授

인물이 한두 명 아니다. 더구나 유색인종 사이에도 격차가 있어서 아시아계에 대한 태도와 흑인이나 라틴계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서 화인작가는 백인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승인을 받기 위해 노력하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기대와는 어긋나는 것에 대한 불만을 은연중에 일종의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하기도 한다. 백인 남성은 화인 여성을 화인 남성으로부터 약탈해가지만 결국 그것은 이상적인 결합이 될 수 없다는 방식으로 서술된다. 화인 남성은 백인 여성의 성적 유혹에 끌리지만 결국 도덕적으로 자제하는데, 그 과정에서 판타지적 요소를 강하게 드러내는 방식으로 전개된다.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의 대부분은 백인의 인종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한다. 백인을 우월화하고 유색인종을 저열화하며, 화인을 모범소수집단에 위치시키면서 인종의 등급화를 시도하고, 출발지 중국에서의 다수로서의 경험과 문화적 자부심을 고집함으로써 오히려 '인종의 삼각 관계' 이데올로기를 고착시키고 있다. 다만 일부는 흑인에 대한 화인의 편견을 지적하고 원주민의 참상을 고발함으로써, 다른 소수인종과의 공감대 형성 및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중심어: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 인종의 등급화, 인종이데올로기, 인종의 삼각 관계, 화인, 백인, 흑인, 라틴계, 유색인종

1. 머리말

2020년 5월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이 비저항 상태인 흑인 용의자의 목을 8분 46초 간이나 무릎으로 짓눌러 질식사시킨 이른바 조지 플로이드(George Perry Floyd)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이 장면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국가폭력에 대한 흑인 저항 운동인 BLM운동(Blacks Lives Matter movements)이 다시금 폭발적으로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로부터 대대적인 인종 차별 반대 운동이 북미를 넘어 전 세계에 걸쳐 확산되었다. 알다시피 그 이전부터 이미 수많은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다. 2012년 트레이본 마틴(Trayvon Benjamin Martin) 사건, 2014년 에릭 가너(Eric Garner) 사건과 마이클 브라운(Michael Brown Jr.) 사건 등등. 더 거슬러 올라가면 1992년 LA 인종폭동의 시발점이 된 1991년

로드니 킹(Rodney Glen King) 사건 역시 그중 하나이다. 사실 북미 역사에서 이런 유의 인종 차별 사건은 수없이 반복되었다.

그런데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은 BLM운동을 포함해서 흑인 차별 문제는 물론이고, 화인에게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차별과 관련한 약간의 언급을 제외한다면, 인종 차별 문제 그 자체에 대해 거의 관심이 없는 것 같다. 북미에서 인종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다. 물론 북미 사회는 공식적으로 인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 세계에서 유형무형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아시아계에 대한 노골적인 비난 내지 무차별 폭력 행위가 그 단적인 예다. 훨씬 미묘한 것들도 많다. 尹曉煌(2010: 28-30)에 따르면, 아시아계 학자의 종신교수 진입 비율이 상당히 낮은 데는 선발 권한을 가진 다수 백인 학자들의 편견 및 화인 등 아시아계 학자들의 주류사회와의 교류의 취약성이 작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종 ‘중국어 이민 배제법’¹⁾ 등에서 보듯이 역사적으로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인종 차별의 피해자인 화인이 인종 차별 문제 자체에 거의 무관심한 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다.

필자의 독서 경험에 따른 이런 인상은 과연 정확한 것일까? 혹시 필자의 오인은 아닐까? 만일 이것이 오인이 아니라 사실이라면 그것은 어느 정도 수준일까? 이와 같은 현상은 대체 왜 일어나는 것일까? 그 의미는 무엇일까? 등등 잇달아 의문이 생겨난다. 이 논문에서는 이런 의문들의 답을 찾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작업을 진행해볼 예정이다.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 대한 간략한 실증적 조사(통계)를 병행하면서 화인 작가가 다른 인종에 대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인종차별 문제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등을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화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자리매김하고 있는지, 그와 같은 상황의 원인은 무엇이며 그 의미는 어떠한지 등을 살펴볼 것이다.

2. 북미 사안 관심 부족

豐雲(2020: 63-64)은 21세기에 들어 화인화문소설은 주제 방면에서 몇 가지 현저한 변

1) 19세기 말에 들어서면서 증가한 화인 노동자의 유입이 백인 노동자에게 위협이 되자 1882년 미국의 ‘중국어 배제법(Chinese Exclusion Act)’, 1923년 캐나다의 ‘중국어 이민법(the Chinese Immigration Act)’을 필두로 하여 기본적으로 화인의 입국을 불허하는 각종 법안이 시행되었다. 이런 악법은 20세기 중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없어졌다.

화가 있었다며 가장 먼저 중국 회귀와 고향 서사라는 이 두 가지의 주제 변화를 거론한다. 湯侗(2021: 181)는 그의 박사논문을 출판한 저서의 마무리 부분에서, 21세기에 들어 북미 화인화문문학은 중국 이야기 및 중국 경험과 관련된 중국 서사가 반복적으로 다루어지는 중요 주제가 되었다고 재차 강조한다. 근래에 들어 화인 작가의 중국굴기에 따른 중국에 대한 관심 제고, 다양한 뉴미디어의 활용, 빈번한 중국 방문 및 역이주, 중국 독자와 출판사에 대한 고려 등등으로 인해서, 이 두 사람의 주장처럼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서 중국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작품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그들도 알다시피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은 이전에도 지금도 절대다수가 화인의 삶을 소재로 하고 있다.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서 중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일정 정도를 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²⁾ 또 중국 대륙학계가 강조하는 '중국 서사'의 의미를 간과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설령 과거의 중국에 대한 추억과 향수를 표출하거나 또는 최근의 중국에 대한 사고와 관찰을 소재로 한 작품이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작품은 기본적으로 중국의 소설과는 전혀 다른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화인 생활을 주제나 소재로 한 절대다수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이 작품들 역시 '흠 떠남'으로 발생한 '흠 없음' 상태에서 다시금 마음과 몸을 의탁할 '흠 찾음'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주제와 소재를 취하든 간에 상관없이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는 결정적으로 초국적 이주자로서 화인 작가의 변화한 삶의 경험과 시각이 강력하게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의 핵심 또는 기반은 다름 아닌 '화인 서사'인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문제는 오히려 다른 곳에 있다.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면 예상하기 어려운 놀라운 현상을 보게 된다. 북미 사회 자체의 삶에 대한 다양한 제재, 치밀한 관찰, 심층적인 사고가 상당히 결핍되어 있다는 것이다. 물론 많은 작품이 이민과 정착의 과정에서 겪는 온갖 경험, 출발지 중국에 대한 회고와 성찰, 초국적 이주자인 화인에 대한 북미 백인 주류사회의 차별, 북미와 중국의 문화적 차이 및 이로 인한 갖가지 사건과 사색, 화인의 법적 문화적 신분(정체성) 변화 등등을 상당히 다양하고 깊이 있게 다룬다. 그렇지만 이들 작품은 대다수가 출발지 중국과 이주지 북미의 대비를 그 기본적인 뼈대로 삼으면서, 화인이 이미 북미 사회의 일원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착 화인이 속한 북미 사회의 극히 중요한 사건이나 사안은 잘 다루지 않는다. 예를 들면 2001년 9·11

2) 필자가 무작위로 131편의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을 대상으로 간략한 통계를 내어보았더니 북미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75.6%(99편), 중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20.6%(27편), 기타 지역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 3.8%(5편)였다. 이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다음 부분에서 제시한 통계를 참고 바란다.

테러, 2003년 이라크 침공, 2005년 초강력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2007년 전 세계 금융 위기까지 불러온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2008년 유색인종인 버락 오바마의 대통령 당선과 연임, 2017년 하비 와이스턴의 성추문 폭로에서부터 촉발된 ‘미투 운동’, 1999년 콜롬바 인고교 사건을 비롯해서 2022년 하이랜드파크 사건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발생하는 무차별 총기 난사 사건 ... 등등의 사건에 관한 작품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³⁾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겨난 것일까? 이에 관해서는 앞으로 더욱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일단 여기서 다음 한 가지만큼은 강조할 수 있다. 화인이 이미 북미 사회의 일원이 된 이상 북미 사회 자체에 대한 관심과 탐구는 당연한 일이다. 특히 그것은 더 나은 삶을 위해 이주한 화인이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바로 그 더 나은 삶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필수적인 일이다.

3. 인종 문제 관심 결핍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중요한 문제적 사안 중에서 한 가지는 인종 문제다. 인종 문제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젠더 문제와 더불어 북미에서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사안이다. 북미 화인학자인 尹曉煌(2013: 27) 역시 미국 화인화문문학의 주제와 기법은 다양하지만 총괄적으로 볼 때 작품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는 종족, 계급, 젠더 세 가지라며 이 점을 강조한다. 다만 필자가 보기에 젠더 문제라든가 계급 문제를 중시한 작품은 어느 정도 있는 편이다. 이에 비해 인종 문제에 주목한 작품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또한 단편적으로나마 인종 문제를 다루더라도 대개 화인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에 한정될 뿐이다. 다른 소수집단에 대한 인종 차별 문제 또는 북미의 인종 문제 자체를 다룬 작품은 아주 적은 것 같다. 혹시 이는 필자의 편견이나 오해는 아닐까? 이런 우려를 감안하여 필자는 우선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서 화인 및 중국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이 출현하는 작품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간략하게 통계를 내보았다. 비록 제한적인 통계이기는

3) 필자의 독서 경험에 따르면 〈藍繡球〉(李一楠, 2018)와 〈夜歸〉(呂紅, 2019)에 각각 9·11테러 직후 미국 경제가 위축되어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간단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이와 별개로 2001년 아프가니스탄 침공(2021년 철수)을 다룬 소설은 2편이 있다. 〈一個士兵之死〉(劉慧琴, 2009)는 캐나다의 백인 병사와 그 가족의 애국적 행동과 슬픔을 묘사함으로써 캐나다 국민으로서 화인의 정체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한다. 〈罌粟, 或者加州罌粟〉(二湘, 2018)는 베트남 출신 미국 화인의 전쟁 트라우마를 묘사함으로써 미국 국민으로서 화인의 정체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하지만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예상했던 바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었다.

통계(1) 주요 배경지 및 다른 인종이 등장한 작품의 편수

주요 배경지	다른 인종 등장 작품편수		인종별 등장 작품편수			
	등장	비등장	백인	흑인	아시아계	기타
북미 99편(75.6%)	49	50	39	5	4	원주민 2 라틴계 2 아랍계 1 혼 혈 3
중국 27편(20.6%)	0	27	1	1	-	-
기타 5편(3.8%)	4	1	3	-	1	-
계 131편(100%)	53	78	43	6	5	7
비고	1. 단순언급 제외 2. 동일 작품에서 상이한 인종이 등장해도 전체 합쳐서 1편으로 산정		1. 단순언급 제외 2. 동일 작품에서 상이한 인종이 등장하면 인종별로 각기 1편으로 산정			

통계(2) 다른 인종 인물의 역할별 작품의 편수

주요 배경지	주요인물				보조인물				단순언급			
	백인	흑인	아시아계	기타	백인	흑인	아시아계	기타	백인	흑인	아시아계	기타
북미 99편	16	1	2	원주민 2 라틴계 0 아랍계 1 혼 혈 1	32	5	4	원주민 1 라틴계 2 아랍계 0 혼 혈 2	32	10	12	원주민 1 라틴계 5 아랍계 0 혼 혈 4
중국		1			1							
기타	1		1		1		1					
계	17	2	3	4	34	5	5	5	32	10	12	10

통계(3) 다른 인종 인물의 주요인물 등장 작품의 편수

주요 배경지	다른 인종의 동일 작품 주요인물 등장 유형		
	화인, 다른 인종 중복 등장	다른 인종끼리 중복 등장	다른 인종 단일 등장
북미 99편	화인, 백인 6 화인, 백인, 원주민 1 화인, 흑인 1 화인, 기타 1	백인, 아시아계 1 원주민, 혼혈 1	백인 8 아시아계 1
계	9	2	9

이 통계의 결과가 의미하는 것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통계 방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이 통계는 이 논문 〈참고문헌〉의 작품집(1)의 서적에 게재된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했다.⁴⁾ 이는 부득이한 조치로 대략 다음 이유 때문이다. 현재까지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을 총괄적으로 대표하거나 시기별로 대표할 만한 선집이 나온 적 없고, 장기간에 걸쳐 정기적 체계적으로 출간되는 시리즈도 없으며, 출판은 산발적이었지만 전체 작품의 양은 방대한 데다가 수집 자체가 지남하고, 장편소설 및 산문·시·평론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마지막으로 단편소설은 특정 시기의 흐름을 비교적 신속하게 반영하면서 특히 논쟁적인 사안을 다루는 데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⁵⁾

이 통계를 포함해서 이 논문에서는 작품에 등장하는 인종을 편의상 백인, 흑인, 아시아계(화인 및 중국인 제외), 기타(원주민, 라틴계, 아랍계, 혼혈 등)로 분류했다. 이런 대략적인 구분은 엄밀한 것도 아니고 그 자체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⁶⁾ 다만 필자가 이런 통상적인 구분에 따라 서술하더라도 이 논문의 논지와 맥락에 결정적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통계에서 작중 인물은 주요인물, 보조인물, 단순언급으로 분류했다. 주요인물은 주인공 및 주인공에 버금가는 역할로 서술한 경우이고, 보조인물은 대화·행동·이력을 어느 정도 분량으로 서술한 경우이다. 단순언급은 〈矚谷女媧〉(曾寧, 2008)에서 “한 무리 백인 아이들이 하하호호 하며 지나갔다”와 같이 행인 수준으로 언급하거나, 〈成年〉(余曦, 2008)에서 “동료들 중에는 금발에 푸른 눈의 토박이 서양인이 없지 않았다”와 같이 몇 마디 정도로 언급한 경우이다. 그 외 인종을 확인할 수 없는 인물은 (대개 백인으로 추정되지만) 통계에서 제외했다. 한편 이 통계의 수치는 작품의 편수를 의미하며, 등장인물의 숫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한 작품에서 특정 인종에 속하는 인물이 여러 명 등장하는 경우, 주요인물, 보조인물, 단순언급의 항목별로 1편으로만 계산했다. 예를 들면, 〈紙鶴〉(凌波, 2005)에는 주요인물로 아시아계(베트남 출신)가, 보조인물로 백인 및 다수의 아시아계(태국·미얀마·크

4) 논문 작성에는 작품집(2)의 작품도 참고했다.

5) 소-링 신시아 왕, 스티븐 H. 수미다(2003: 363)에 따르면, 메리 루이스 프랫(Mary Louise Pratt)은 장편소설에 비해 단편소설이 성이나 계급과 같은 터부시되는 주제들을 다루는 데 있어 오히려 용이하다고 주장하며, 레이철 리(Rachel Lee)는 여기에 인종과 인종차별과 같은 항목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라면서 필자와 유사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6) 소-링 신시아 왕, 스티븐 H. 수미다(2003: xi-x xii)에 따르면, 아시아계 미국인 문학과 관련해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범주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초기에는 대개 한중일의 동아시아계만 지칭하다가 점차 동남아시아계를 포함했다가 다시 태평양계와 남아시아계도 포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필리핀계나 인도계는 여전히 이런 경향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메르 출신 등)가, 단순언급으로 다수의 흑인 및 혼혈이 등장하는데, 이를 주요인물 아시아계 1편, 보조인물 백인 1편과 아시아계 1편, 단순언급 흑인 1편과 혼혈 1편으로 처리했다. 다만 이런 작품은 아주 드물었다.⁷⁾

물론 통계 방식에 관한 이런 설명보다 훨씬 중요한 것은 이 통계가 보여주는 의미이다. 그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인종 사회인 북미의 일원으로서 생활하는 화인 작가의 작품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인종이 등장하는 작품이 그다지 많지 않다. 통계(1)에서 보다시피 일단 중국이나 기타 지역을 주요 장소 배경으로 하는 작품 32편은 제외하고 북미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 99편에 한정시켜 보더라도 이 점은 마찬가지다. 단순언급을 제외하고 나면 다른 인종이 주요인물과 보조인물로서 일정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99편의 절반 정도인 49편에 그친다. 심지어 단순언급까지 포함하더라도 다른 인종이 아예 등장하지 않는 작품이 99편 중 29편이나 된다. 물론 현실 세계에서 많은 화인이 화인 공동체를 중심으로 생활하고 활동한다. 그러나 이들이 자연스럽게 수많은 다른 인종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살아간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다. 이런 면모는 작가의 직접 체험을 토대로 하는 산문 작품에서 명확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면, 劉荒田(2008)은 그의 산문집에서 자신이 접촉한 인물의 인종을 일일이 밝혀놓은 경우가 많은데, 이를 보면 화인이 얼마나 많은 다른 인종과 부대끼며 살아가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런 사실을 생각해볼 때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 다른 인종이 등장하는 경우가 이처럼 적다는 것은 사실상 다른 인종에 대한 화인작가의 관심이 그다지 높지 않음을 의미한다.

둘째, 여러 요소를 종합해보면 화인과 중국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의 비율과 비중이 매우 낮다. 위 통계(2)만 보면 북미를 주요 배경지로 하는 작품 99편 중에서 23편에 다른 인종이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통계(3)에서 보듯이 화인과 중복 등장하는 작품이 9편, 다른 인종끼리 중복 등장하는 작품이 2편, 특정 인종만 등장하는 작품이 9편이어서 그 숫자는 20편으로 줄어든다. 그런데 이것이 다가 아니다. 화인과 중복 등장하는 작품의 경우 사실상 화인이 핵심적인 인물 즉 주인공이고 다른 인종은 부주인공쯤 되는 인물에 그친다. 예를 들면, 〈路口〉(老搖, 2005)의 주인공은 화자인 화인 자신이며, 20세기 전반 미시시피의 전설적인 흑인 기타리스트인 로버트 존슨(Robert Johnson)에 관한 대량의 서술은 작가의 메타픽션적 소설을 부각시키기 위한 보조 장치일

7) 이 때문에 통계(1)과 통계(2)의 등장 인종별 작품 편수의 합계가 다르다. 즉 통계(1)은 단순히 특정 인종이 등장한 작품 편수를 밝힌 것이고, 통계(2)는 특정 인종이 주요인물, 보조인물 및 단순언급에 각각 등장한 경우의 작품 편수를 별개로 밝힌 것이다.

뿐이다. 또 주요인물로서 화인이 중복 등장하지 않고 순수하게 다른 인종만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작품 9편 중에서 2편을 제외하고 나머지 7편의 화자가 화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따라서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서 다른 인종이 작품에서 주요인물로 등장하는 작품의 비율과 비중이 매우 낮다고 말하는 것은 결코 과언이 아니다.

셋째, 인종에 따라 작품에 등장하는 비율이나 작품 내 역할의 비중에서 놀랄 만큼 큰 격차를 보인다. 무엇보다도 통계(2)에서 보다시피 백인이 등장하는 작품 자체가 절대적으로 많은 가운데 다른 인종에 비해 백인이 주요인물 또는 보조인물로 등장하는 작품 역시 압도적으로 많다. 역으로 말해서 백인과 대비해보자면 흑인, 아시아계, 기타 인종이 등장하는 작품의 편수가 너무 적고 작중의 비중 역시 너무 낮다. 더구나 이는 거의 충격적인 수준이다. 예를 들면 화인의 일상생활에서 접촉이 대단히 빈번한 라틴계가 (단순언급을 제외하고) 조금이나마 서술되어있는 작품은 겨우 2편에 불과하다. 그러나 북미 화인 생활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일상생활에서 백인 못지않게 라틴계를 접촉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는 데는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앞서 거론한 劉荒田(2008) 역시 그렇다. 작가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도 했겠지만 이 산문집에는 백인보다 오히려 라틴계 사람들이 훨씬 많이 등장한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화인작가들은 백인에 대해서는 그나마 어느 정도 관심이 있지만 그 외의 인종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서 백인이든 아니든 간에 화인 및 중국인을 제외한 다른 인종의 등장 비율 및 역할 비중이 이렇게 적은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화인 작가가 당장 자신의 생활과 지위 개선에 집중하고 있고 또 그들과 다른 인종 사이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표면적인 이유가 전부는 아니다. 그보다는 뭔가 필자가 보기에 그 외 대략 다음과 같은 심층적인 이유가 작용하고 있다. 첫째, 중국인에서 북미인(화인)으로의 전환보다는 중국인의 북미 사회 적응이라는 태도를 견지하는 사고의 편향성이 작용하고 있다. 둘째, 법적 신분 획득, 문화적 적응, 백인 주류사회의 인정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화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인식의 부정확성이 작용하고 있다. 셋째, 출발지 중국에서는 다수로 살다가 이주지 북미에서는 소수로 바뀐 상태이므로 소수 그 자체에서 비롯되는 절실한 체험과 의식의 결핍이 작용하고 있다.⁸⁾

여기서 마지막 사항에 관해서는 조금 덧붙일 필요가 있을 것이다. 21세기 북미화인화문

8) 참고로 화인화문문학을 연구하는 중국 대륙학자들 역시 인종 문제에는 별반 관심이 없다. 중국 대륙학자들이 북미의 인종문제에 대해 실감과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혹시 중국 대륙 내부의 종족 차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

단편소설 작가는 절대다수가 이민 1세대다. 따라서 그들에게는 출발지 중국에서 수천 년간 강력한 집단을 형성하고 문화적 파위를 발휘해온 다수로서의 관심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다가 특히 오늘날 중국굴기라는 상황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북미인(백인)이 화인(중국인)을 어떻게 보느냐 또는 전자가 후자를 어떻게 인정해주느냐에만 관심이 있다. 반면에 북미 소수인종의 역사적 경험, 문화적 원천, 현재적 상황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다. 달리 말하자면 화인이 근본적으로 우월감을 가진 상태에서 이주를 한 데다가 중국이 갈수록 파위를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일시적으로 억압을 당하지만 곧 응당한 위치를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출판과 열독이 대부분 중국에서 이루어지므로 그들은 이를 의식해서 중국의 중국인에게 어필하려고 하게 마련이고, 그러다 보니 다수자로서 중국인(사실상 한족)으로서의 자부심만 강조하고 소수자로서 화인의 상황과 문화가 갖는 성격을 소홀히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에 따라 인종 문제에서도 간단히 화인(중국인)이 북미인(백인)에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식의 이미지만 부각하는 것이다.

4. 인종의 등급화 관념

어쨌든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서 화인 또는 중국인이 아닌 다른 인종이 등장하는 작품이 많지 않으며 등장하더라도 작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특히 무엇보다도 인종에 따라 등장 비율과 역할 비중이 크나큰 격차가 있다. 그렇다면 인종에 따라 그 표현에도 이런 격차가 작용하지 않을까? 먼저 〈警探理查遜〉(張翎, 2003)의 첫머리에 나오는 다음 부분부터 보자.

경찰학교를 막 졸업한 데이비드 리처드슨이 군청색 경찰복을 입고 해밀턴 타운을 순찰하던 그해 가을 [...] 이후 사람들은 [이름인] 데이비드가 아니라 [성인] 리처드슨을 사용해서 그를 불렀다. [...] 그의 직업이 지니고 있는 더욱 깊은 수많은 의미에 관한 것은 훗날 [...] 한 중국 여자가 차차 그에게 일러 주게 된다.

이 젊은 백인 경찰은 이듬해 강도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폭행을 당하고도 침묵하는 한 화인 여성(한 중국 여자)을 보살피고 사랑하다가 결혼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후에도 끈

질기게 범인을 추적한 끝에 결국 총탄을 “갈색 머리카락”인 “그 남자의 상반신과 하반신을 잇는 바로 그곳에 명중”시킨다. 그리고 신문에서 이를 알게 된 여주인공의 늙은 아버지는 그에게 “캐나다 경찰학교는 좋은 곳일세.”라고 말한다. 이런 간단한 요약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시피 이 소설은 정의로운 백인 남성이 무지한 동양 여성을 구원해주는 이야기이자 마치 백인 총잡이와 인디언 추장 딸 사이의 러브 스토리나 다름없다. 그리고 이는 사실상 백인이 다른 소수집단의 보호자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 소설에서 백인 경찰은 사적인 이름 대신 공적인 성으로 불릴 만큼 권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으며, 단순히 유능하고 정의로운 인물에 그치지 않고 친절하고 다정하며, 특히 화인을 아끼고 보호하는 인물로 묘사된다. 이 작품뿐만 아니다. 〈好小夥子〉(范遷, 2005), 〈生個加拿大〉(原志, 2008), 〈入門〉(慧卿, 2009), 〈罌粟, 或者加州罌粟〉(二湘, 2018) 등을 비롯해서 상당히 많은 작품에서 백인 경찰 및 (앞뒤 맥락이나 이름 등으로 볼 때) 백인으로 추정되는 경찰이 등장한다. 그리고 이들은 대부분 능력 있고 친절하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는 인물로 그려진다.⁹⁾

백인 경찰의 예에서 보다시피 대다수 작품에서 백인은 권한 내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거나 아니면 그것을 행사할 만한 지위 또는 부를 가지고 있는 인물로 묘사된다. 작품에 등장하는 백인 인물들의 직업이나 신분을 열거해보면 이 점이 여실히 드러난다. 예를 들면 의사·간호사·변호사·회계사·건축가·교수·연구실 책임자·IT회사 공동 창업자·개발 기업 창업자 손녀·팀장·매니저·은행원·입국 심사대 직원·부유한 집주인... 등의 백인 인물이 등장한다. 물론 이들 역시 대체로 친절하고 다정하면서 필요할 때는 자신의 능력과 권한을 충분히 발휘한다. 또한 백인은 설령 지위나 지위가 높지 않은 보통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대개 긍정적인 이미지로 표현된다. 〈小鳥依人〉(蘇煒, 2005)의 총명하고 열성적인 자원봉사자 “미국 아가씨(美國姑娘)” 쟈, 〈維維安在美國的最後一天〉(曾曉文, 2005)의 친절 한 꽃집 주인 “미국 여자(美國女人)” 마사, 〈格勞莉啞〉(唯唯, 2019)의 조용하고 예의바른 방문객 “미국인(美國人)” 마이크, 〈紙鶴〉(凌波, 2005)의 퇴역군인으로 도서관 잡역부인 온화한 “미국 늙다리(美國老頭)” 댄, 〈O.K. 馬之死〉(黃運基, 2008)의 강인하고 능력 있는 중개사인 “미국 여성(美國女郎)” 주디, 〈瑪格麗特的故事〉(黃鶴峰, 2008)의 쾌활하고 열정적인 바하이 신도인 “미국인(美國人)” 노부인 마가렛, 〈同事馬裏奧〉(笑言, 2008)와 〈成年〉(余曠, 2008)의 화인 화자와 격의 없이 지내는 직장 동료 “캐나다인(加拿大人)” 마리오와 “서양인(西人)” 수잔 ... 등등 많은 사람이 그렇다.

9) 예외라면 〈Silent Night〉(自先勇, 2016)에서 엄마와 잠시 동거하면서 어린 시절 주인공에게 폭력을 행사했던 백인 경찰 정도이다.

여기서 필자가 특별히 따옴표를 사용하여 일부 단어를 작품의 문구 그대로 표시한 것은 앞에서 설명한 사항들이 결국은 특정한 사실로 집약됨을 말하기 위한 것이다. 화인 작가들은 백인 주류사회 구성원으로서 백인의 지위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백인의 도움과 수용이 있어야만 화인의 북미 사회 안착과 백인 주류사회 편입이 가능하다고 보며, 백인의 친절과 환대를 갈망하면서 그러한 백인의 모습을 강조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때문에 미국과 캐나다가 다인종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그들은 무의식중에 백인을 간단히 미국인·캐나다인·서양인 등으로 호칭하는 것이다.

반면에 백인을 제외한 이른바 유색인종에 대한 표현은 어떠할까? 이번에도 먼저 〈紙鶴〉(凌波, 2005)에 서술된 다음 인용문부터 보자.

그녀는 음식점의 단골들이 그녀에게 마음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예를 들면, 키 크고 잘생긴 그 젊은 변호사 [...] 또 젊은 그 경찰도 있다. 앤은 그렇게 잘생긴 흑인 젊은이를 본 적이 없었다. 몸매도 훗칠해서 정말 모델을 해도 될 정도였다. 그는 자신이 FBI 요원을 지원했으며 장차 정치에 진출해 미주리 주지사로 나갈 거라고 하면서 애도 많이 낳을 거라고 했다.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서 백인 경찰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데 비해서 유색인종 경찰이 나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통계 대상 작품에 한정한다면, 위 인용문의 흑인 경찰 및 〈離岸流〉(凌嵐, 2018)의 “비쩍 마르고 키 큰” 흑인 경찰과 〈洛杉磯發生的故事〉(劉晉平, 2012)의 경비회사 직원인 라틴계 “뚱보” 퇴직 경찰 이렇게 모두 세 명에 불과하다. 백인 경찰의 이미지는 대부분 긍정적이다. 그러면 유색인종 경찰은 어떨까? 위 인용문을 얼핏 본다면 그들 역시 긍정적으로 묘사된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소설의 앞뒤 맥락도 그러하지만) 위 인용문을 꼼꼼히 읽어본다면, 이 젊은 흑인 경찰은 음식점 여종업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자기 입으로 자신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떠들었음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외모만 그럴싸할 뿐 실은 경박한 인물로 보이는 것이다.

유색인종이 등장하는 작품이 현저하게 적어서 다양한 사례가 없다는 점도 있지만,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백인과는 달리 결정권이 있는 직업이나 지위를 가진 유색인종은 거의 없다. 위의 경찰 셋을 빼고 나면 스리랑카 출신 변호사, 인도계 간호사, 흑인 슈퍼마켓 매니저 정도가 전부이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결정권자이기는커녕 〈一份厚重的聖誕禮物〉(劉俊民, 2018)의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공인 라틴계 청년, 〈離岸流〉(凌嵐, 2018)의 라틴계 해충 방역사와 노점상, 〈紙鶴〉(凌波, 2005)의 베트남계 식당종업원 앤, 〈被遺忘的角落〉(劉慧琴,

2005)의 빈곤과 범죄의 희생자가 되어 마약중독자로 전락했다가 결국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원주민 린... 등 사회 저층에 속하는 유색인종이 훨씬 많이 등장한다. 심지어 백인 인물에게서는 거의 볼 수 없는 문제적 인물이 한두 명 아니다. 〈好小夥子〉(范遷, 2005)의 충기 강도 살인범 베트남계 앨런과 샘, 프랑스 용병 출신의 잔인무도한 아시아계 혼혈 마약 밀매범, 쇼핑광이자 섹스광인 아시아계 혼혈 모나리자, 〈紙鶴〉(凌波, 2005)의 도박꾼인 태국계 샘, 태국에서 여권 위조 브로커였던 샘의 부모, 〈離岸流〉(凌嵐, 2018)의 자기들끼리도 충질을 해대는 3인조 흑인 자동차 강탈범, 〈好小夥子〉(范遷, 2005)의 장물아버지 흑인 피터, 〈陪讀父親〉(朱琦, 2005)의 자동차 수리공이면서도 용돈벌이로 마약을 파는 흑인 짐 ...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벅찰 지경이다.

이런 인물들에게서 충분히 알 수 있듯이 유색인종에 대해서는 백인과는 달리 긍정적 이미지보다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각된다. 예를 들면 흑인은 경박하고 쌍스럽다는 이미지로 묘사된다. 〈紙鶴〉(凌波, 2005)에서는 앤이 귀가할 때면 이웃집 계단에서 큰 소리로 떠들어대던 “흑인 녀석들(黑人小夥子)”이 휘파람을 불어댄다. 또 〈好小夥子〉(范遷, 2005)에서는 모나리자가 초미니 스커트에 노팬티로 대시보드에 다리를 걸쳐놓은 채 차를 타고 가는데, 때마침 불어온 바람 때문에 스커트가 들썩거리자 이 장면을 목격한 옆 차의 “흑인놈(黑鬼)”들이 계속 쫓아오면서 소리를 지르고, 침을 뱉고, 야한 소리를 하고, 캔을 집어 던지며 야료를 부린다. 그런데 왜 하필 그런 순간에 흑인들일까? 또 특별히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닌데 은근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경우도 없지 않다. 예컨대 〈伊蓮娜〉(黃宗之, 2012)가 그렇다. 화인 화자가 근무하는 연구소에 얼마 전부터 멕시코계 여비서 아이제이아와 역시 멕시코계로 보이는 젊은 신입 여직원 엘레나가 어울려 다닌다. 엘레나는 화자의 조수가 되는데, 영어도 어눌하고 일도 서툴지만 두고 볼수록 처음 인상과는 달리 총명하고 근면 성실하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모기업인 스페인 재벌 기업의 창업자 손녀이자 대표이사의 딸 즉 백인이다. 물론 작가의 의도는 엘레나의 그런 겸손한 행동과 뛰어난 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요약만으로도 이미 화인의 라틴계에 대한 선입견 내지 편견과 백인에 대한 호감을 알 수 있을 것이다. 소설 시작 부분에 나오는 다음의 간단한 묘사는 이런 점을 확인시켜줄 것이다.

엘레나는 정말 평범했다. 생김새도 보통이고 입성도 간단하고 [...] 내가 그녀를 눈여겨보게 된 것은 우리 부서의 여비서 아이제이아 때문이었다. 똥똥해서 움직일 때마다 몸을 뒤똥거리는 이 젊은 아낙네와 하늘하늘한 엘레나는 늘상 부조화스런 모습으로 붙어다녔다. 당시 나는 [...] 이 기묘한 조합을 바라보며 남몰래 속으로 비

웃었다.

이런 것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백인과 유색인종 사이뿐만 아니라 유색인종들 사이에서도 격차가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아시아계에 대한 태도와 흑인이나 라틴계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 아시아계는 앞에서 거론한 것처럼 비록 빈민과 범죄자도 있지만 변호사와 간호사도 있으며, 또 등장 횟수가 비교적 적은데도 불구하고 사회 중간층에 속하거나 긍정적으로 묘사되는 인물이 많다. 예컨대 〈回家〉(朱雪梅, 2012)의 집을 사서 새로 이사 온 아시아계 중년 부인, 〈伊蓮娜〉(黃宗之, 2012)의 자존심 강한 필리핀계 연구원 마하, 〈好小夥子〉(范遷, 2005)의 인질범을 설득하러 온 베트남계 목사, 〈溫哥華的私房菜〉(也斯, 2009)의 건강하고 개성 있고 독자적인 일본계 젊은 학생들, 〈爲了維克托〉(王堯, 2017)의 성실한 인도계 공사장 경비... 등이 모두 그렇다. 만일 화인 자신을 아시아계에 포함시킨다면 그 수준은 훨씬 높아진다. 화인은 많은 작품에서 사업가·최고 경영자·교수·의사·간호사·회계사·작가·화가·프로그래머·유학생 등으로 나온다. 설령 음식점 종업원이나 단순 노동자로 나오더라도 대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잠시 일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에 반해 흑인은 전혀 다르다. 흑인은 등장 횟수도 많지 않거니와 등장하더라도 앞에서 보듯이 범죄자이거나 경박하고 천박한 인물로 묘사된다. 라틴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예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하다. 어쩌다 등장하면 허드렛일을 하는 노동자로 간단히 언급된다. 그게 아니면 〈好小夥子〉(范遷, 2005)의 용병 출신 혼혈인 마약 밀매업자가 같이 살던 멕시코계 여자처럼 뚱뚱하고 의문스러운 사람의 이미지로 묘사되거나, 〈Silent Night〉(自先勇, 2016)의 풍만한 몸매를 들이대며 거침없이 행동하는 직장 여성 브라질계 아만다처럼 지적 수준이 낮으면서 성적으로는 방종한 사람의 이미지로 묘사된다.¹⁰⁾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는 마치 인종별 등급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일까? 물론 현실적으로 인종별로 여전히 사회적 계층에 차이가 있고, 화인이 접촉하는 기회 면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작품에 나타나는 인종별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이런 정도의 설명만으로는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그보다는 더 심층적인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닐까? 필자가 보기에 여기에는 오랜 시간 대중매체 등을 통해 전파되고 누적되어온 백인의 인종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첫째, 백인이 아닌 유색인종은 모두 열등하다는 이데올로기다.

1607년 나중에 제임스타운이라고 명명된 곳에 105명의 영국 식민자집단이 상륙했고,

10) 〈當宇秀是露絲瑪麗的時候〉(宇秀, 2009)의 부유한 멕시코인 여행객들은 라틴계 미국인 또는 캐나다인은 아니지만 쇼팽에 미친 사람의 이미지로 묘사된다.

1619년 이곳에서 버지니아 식민지 의회가 개최되었으며, 달포 후 이곳에 네덜란드 선박이 도착해 아프리카 흑인 20명을 팔아넘긴다. 같은 시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인간에 의해 민주주의적 근간이 되는 대의체 의회와 비민주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인 흑인 노예제도가 동시에 탄생하는 기묘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혼다 소조 2021: 31-33). 그리고 그 이후 지금까지 북미의 흑인은 끊임없이 유형무형의 인종차별을 받아왔다. 수백 년에 걸친 이 긴 시간 동안 자유와 평등을 향한 흑인의 치열한 투쟁에도 불구하고 백인 주류사회에 의해 흑인은 나태한 품성, 노예적 근성, 동물적 기질 때문에 노예, 빈민, 범죄자, 마약중독자 따위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이미지가 들쭉날쭉했다. 한 마디로 흑인은 야만적이고 저열한 인종이라는 것이다. 흑인에게 사용된 이런 방법은 아시아계를 비롯한 다른 소수인종에게도 거의 그대로 적용되었다. 흑인을 포함해서 모든 소수인종은 정치적 자유, 경제적 기회, 법률적 보장, 문화적 인정 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차별받으면서 현실적으로 억압되고 이데올로기적으로 저급화되었다. 화인을 예로 든다면, 19세기 말 이래 20세기 중반까지 시행된 미국과 캐나다의 각종 ‘중국인 이민 배제법’이라든가, 흑인에 대한 악의적인 신체 이미지 — 두꺼운 입술, 짙은 피부, 교활한 웃음, 조아린 머리, 비굴한 자세, 백인 여성에 대한 동물적 위협성 등등 — 를 화인에게 그대로 적용시켜 화인을 마치 흑인처럼 묘사한 ‘화인의 흑인화’¹¹⁾가 바로 그 단적인 예다.

둘째, 아시아계에 대한 모범소수집단 이데올로기다.

1960년대 중반 미국의 대중 일간지와 주간지에 아시아계 미국인의 성공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1980년대에 언론에서 대대적으로 아메리칸드림이 이루어진 예로 이들의 성공 이야기를 다루었다. 애초 사회학자인 윌리엄 피터슨(William Peterson)이 모범소수집단(model minority)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 모범소수집단이라는 용어와 개념은 아시아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널리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모범소수집단은 아시아계가 근면 성실하고 근검절약함으로써 교육, 직업, 소득 수준 등에서 일정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는 아시아계가 수동적이고 순종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며, 심지어 비굴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이와 동시에 아시아계가 실은 백인이 볼 때 백인보다는 못하지만 흑인보다는 모범적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기서 파생되어 아시아계를 완충소수집단(buffer minority), 중간인소수집단(middleman minority)으로 부르기도 한다.¹²⁾ 달리 말하자면 이런 이데올로기는 아시아계에 대한 백인 주류사회의 인정과 칭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백인에 대한 아시아계의 순종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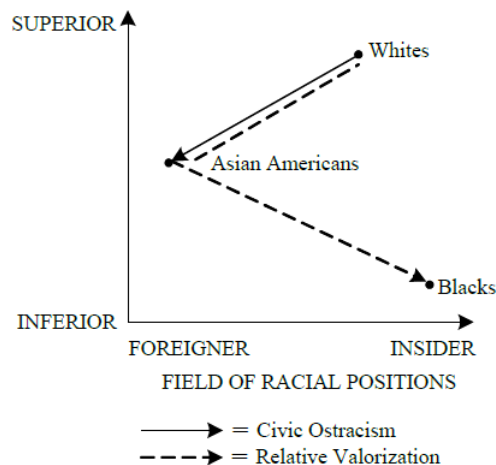
11) ‘화인의 흑인화’에 관해서는 黃秀玲(2005: 17-20)의 글과 삽화를 참고 바란다.

12) 이상 최수경(2011), 김애주(2016), 黃秀玲(2005) 등 참고.

강요하고 아시아계와 흑인 및 다른 소수집단 사이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주류집단에 의한 인종 차별 문제를 소수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바꾸어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셋째, 백인과 흑인은 내부자이고 아시아계는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이데올로기다.

백인 주류사회는, 유색인종은 열등하다는 이데올로기와 아시아계는 모범소수집단이라는 이데올로기를 교묘하게 병행 사용하면서, 필요에 따라 아시아계를 흑인과 같은 저열한 집단으로 취급했다가 또는 흑인과는 다른 모범적 집단으로 취급했다가 하면서, 사실상 차별받는 집단끼리 상호 불신하고 비난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이 과정에서 백인과 흑인이 아닌 다른 이민자 특히 아시아계는 영원한 이방인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활용되었다. 일찍이 Claire Jean Kim(1999)이 제시한 이른바 '인종의 삼각 관계'(racial triangulation)는 바로 이 점을 정확히 지적한 것이다. Kim(1999: 108)의 다음 도표는 이를 축약적으로 보여준다.



위 도표에서 보다시피 백인 주류사회는 19세기 중반 아시아계 이주자가 유입된 이래 인종적으로 백인은 우월하고 아시아계는 보통이며 흑인은 열등한데 다른 한편으로 백인과 흑인은 내부자(Insider)인 반면에 아시아계는 국외자(Foreigner) 즉 이방인이라는 관념을 끊임없이 조성하면서 이를 활용해왔다. 다시 말하자면 비록 아시아계는 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근면 성실하지만 흑인은 백인과 더불어 주인인 반면에 아시아계는 영원한 이방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아마도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북미의 백인과 흑인이 종종 아시아계를 향해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모습을 떠올리면 이 점이 쉽게 이해될 것이다. 결국 이는 모범소수집단 이데올로기와 함께 백인 주류집단에 의한 인종 차별 문제를 소수집단 사이의

갈등으로 바꾸어버리면서, 흑인을 통해 아시아계를 견제함과 동시에 소수집단 간의 갈등을 격화시키는 기능을 한 것이다.

이처럼 백인 주류사회는 유색인종은 열등하다, 아시아계는 모범소수집단이다, 아시아계는 영원한 이방인이다라는 이데올로기를 교묘하게 병행 사용하면서 백인의 주도권을 유지하고 아시아계를 배척하며 아시아계와 흑인, 아시아계와 라틴계 사이의 갈등을 조장해왔다. 말하자면 억압자는 모습을 감추고 피억압자끼리 상호 불신하고 상호 비난하는 상황을 만들 어낸 것이다.¹³⁾ 이러한 이데올로기는 장기간에 걸쳐 대중매체를 통해 확산되었다. 예를 들 면, 대중소설·영화·드라마·만화 등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었던 인물들인, 보살핌이 필요 한 온순하고 순종적인 흑인 샘보(Sambo), 백인처럼 행동하려 하지만 우스꽝스럽기만 한 쿤 (Coon), 똥똥하고 현신적인 하녀 매미(Mammy)라는 흑인 이미지가 그러하다. 또 아시아계 를 대표하는 재치 있고 지혜로운 찰리 첸(Charlie Chan), 백인 여성을 탐하는 사악한 푸 만추(Fu Man Chu)의 이미지 역시 앞선 흑인 이미지처럼 동전의 양면에 해당하는 것이 다.¹⁴⁾ 바로 이런 백인의 인종이데올로기는 아이러니하게도 그 피해자 중 하나인 화인에게 도 그대로 흡수되고 내재화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서 마치 인종별 등급이 있는 것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5. 백인에 대한 기대와 불만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화인(또는 화인작가)은 백인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승인 을 받기 위해 분투노력하며 백인의 호의와 친절을 기대한다. 그러면서 출발지에서 다수로서 의 경험과 출발지에 대한 강한 문화적 자부심 및 최근의 중국굴기를 배경으로 백인이 화인 의 문화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들과 동등한 지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다른 한편 으로 그 전까지 최소한 모범소수집단으로 간주되는 것에 안도하면서, 자신들은 저열한 흑인 및 다른 소수집단보다는 상위에 있다고 여긴다. 그렇지만 아무리 그렇다고는 해도 백인에 의한 차별 자체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지 않을 수 없다. 단지 그러한 불만이 의식적이고 노골 적으로 표출되는 경우가 많지 않을 뿐이다. 즉 화인이 백인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그들의 승

13) 이러한 조장의 심각하고 명확한 결과 중 하나는 1992년 LA 인종폭동이었다. 당시 백인 거주지 는 철저히 보호되는 가운데 코리아타운은 흑인과 라틴계에 의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다.

14) 이 다섯 명의 이미지에 관해서는 장태한(2012: 260-265)과 김애주(2016: 50-51) 참고.

인을 통해 백인 주류사회에 편입되고자 하는 강렬한 갈망에도 불구하고 백인이 이를 무시, 외면, 거부해버림으로써 생겨나는 화인의 불만이 그냥 해소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불만은 화인과 백인의 남녀 결합 부분에서 불명확하지만 예상하지 못한 방식 또는 왜곡된 방식으로 표출된다.

백인 남성 + 화인 여성의 경우 통계 대상 작품 중 대략 16편에 출현할 정도로 비교적 빈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 작품에서는 모든 백인 남성이 입국, 영주권, 경제력 이 세 가지 중 적어도 한 가지는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설정된다. 예를 들면 〈風·自由〉(張慈, 2008)가 그렇다. 20세의 대학 졸업 1년차인 화인 여성 송은 오로지 중국을 벗어나 자유롭게 다니고 싶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중국을 방문한 75세의 노인인 백인 남성 스톤에게 접근한 끝에 그와 결혼하여 미국에 가서 살게 된다. 그 후 대저택에서 남편인 노인의 딸·사위·외손자 가족과 함께 지내다가 다시 모험을 추구하는 노인을 따라 요트 여행에 나선다. 소설의 전체 전개는 다소 영성한 편이지만 어쨌든 백인 남성이 화인 여성에게 상기한 세 가지를 모두 제공해준 셈이다. 세 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되어있는 〈沈默的母親〉(張惠雯, 2018)에서 결혼 중개 홈페이지를 통해 알게 되어 부유하고 권위적인 백인 남성 요크 선생과 순종적인 화인 여성 요크 부인이 미국에서 부부로 살고있는 이야기도 이와 마찬가지로 다. 심지어 경찰의 마사지 업소 대대적 단속과 화인 여성의 곤혹스러운 상황을 소재로 한 〈入門〉(慧卿, 2009)에 나오는 텐인이라는 음악가 출신 화인 여성과 빈털터리 백인 남성의 경우도 있다. 그녀는 캐나다 입국 후 1년도 안 되어 이 백인 남자 친구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바람에 마사지 업소에 '입문'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어쨌든 빈털터리 백인 남성조차도 최소한 화인 여성을 캐나다에 입국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런 소설들에서 보다시피 백인 남성과 화인 여성의 결합은 정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고, 불분명하나마 뭔가 불만스러운 요소가 없지 않다. 특히 다수의 작품에서는 백인 남성이 무능한 화인 남성으로부터 화인 여성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묘사된다. 예를 들면, 〈想家了〉(夫英, 2018)의 여주인공인 화인 여성은 유부녀 신분으로 단신 이주한 후 여전히 중국인 남편을 사랑하면서도 그녀가 원하는 걸 그가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이주 1년 3개월 만에 이혼한다. 그리고 그전부터 이미 의도적으로 나이가 제법 많은 백인 남성과 기회를 만들어 재혼하고 영주권까지 얻는다. 이 소설의 문구에 따르면 "미국에 온 일부 이민자들 사이에서 이런 일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洛杉磯發生的故事〉(劉晉平, 2012)의 주인공 나윈칭이 겪은 것도 이와 비슷하다. 아내인 류위후이의 초청으로 뉴욕에 오자마자 이혼 요구를 받는데, 그녀는 이미 한 백인 엔지니어와 동거하고 있는 상황이었다.¹⁵⁾

이 두 편이 백인 남성과 화인 여성의 결합에 대한 은근한 불만을 간단하게 몇 마디로 처리

하고 말았다면, 〈假若重新來過〉(楊慰慰, 2018)는 이를 상당히 상세하게 처리하고 있다. 아란과 카이즈 부부가 아이까지 데리고 미국에서 유학하는데, 연구실 책임자인 백인 남성 대니얼은 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자상하고 낭만적인 태도로 끊임없이 유부녀인 화인 여성 아란을 공략한다. 후일 아란과 카이즈 부부가 학위를 마치고 직장 관계로 떨어져 살게 되면서 점점 틈이 생겨 이혼에 이르게 되자, 아란은 대니얼의 공세를 받아들여 그와 재혼을 한다. 그리고 이 백인 남성과 화인 여성 커플은 아이 둘까지 낳지만 대체로 백인 남편의 권위적인 태도 탓에 마지막에는 다시 헤어지게 된다. 이 소설은 백인 남성의 우월하고 유력한 지위 및 로맨틱하고 적극적인 행동(강렬한 남성성)과 화인 남성의 열등하고 무력한 처지 및 건조하고 유약한 행동(위축된 남성성)이라는 상황을 설정하고, 그런 상황에서 백인 남성이 화인 여성을 화인 남성으로부터 약탈해가지만 결국 그것은 이상적인 결합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내보이는 것이다. 요컨대 백인 남성 + 화인 여성에 대한 이야기는 화인 작가에게 백인의 인종이데올로기가 내재화되어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 불분명한 반감을 표시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화인 작가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백인 남성의 권능과 아시아계 남성의 왜소화를 받아들이고 있으며, 그런 한편으로는 또 은연중에 이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다.

화인 남성 + 백인 여성의 경우는 현저하게 빈도가 낮다. 그중 결혼으로 결합된 작품은 〈相逢正是尷尬時〉(宋曉亮, 2008) 단 1편이다. 그런데 이 작품에서도 백인 여성은 백인 남성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인 화인 남성보다 상위에서 영주권과 경제력 제공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작중의 화자는 “헬렌이 집안의 보스로, 모든 일에서 그녀가 항상 첫 번째였다.” “집도 샤오즈의 것이 아니라 헬렌의 것이었다.”라며 불만스러운 어투로 말한다. 그런데 그보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나머지 작품들이다. 다소 번거롭지만 먼저 다음 요약을 보자.

〈窗簾後邊的考夫曼太太〉(沙石, 2005)에서 화인 남성 멩 영감은 백인 여성 미시즈 카프만의 집에 정원사로 입주한다. 그는 부자고 미모인 그녀를 홀로 연모하면서 온갖 성적인 상상을 다 하던 끝에 그녀가 반려견과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만큼 성도착적인 행위를 하는 장면을 훑쳐보고는 반려견을 죽인 뒤 종적을 감춘다. 〈女房東〉(嚴歌苓, 2005)의 화인 남성 라오차이는 이민을 오자마자 먼저 이민한 아내에게 이혼을 당하고, 세를 든 집의 신비한 백인 여주인 미시즈 요크에게 성적인 상상을 포함해서 일방적인 연정을 품었다가 결국 수치심

15) 심지어 앞에서 이미 거론한 〈警探理查遜〉(張翎, 2003)의 백인 경찰과 화인 여성의 경우처럼 (비록 일종의 판타지라고는 하더라도) 거의 완벽한 결합조차도 실은 백인 남성이 화인 여성을 화인 남성인 늙은 아버지를 대체하고 새로운 보호자가 된 셈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작용하여 스스로 물러나고 만다. 〈同屋男女〉(冰凌, 2005)에 교환교수로 온 화인 남성 자오충광은 백인 여성 루시의 집에 서브렛으로 들어가서 유부녀로 남편과 떨어져 사는 루시와 육체적 관계로까지 발전하지만 뒤이어 자신의 부인이 도착하자 두 사람 사이를 청산한다. 〈O.K.馬之死〉(黃運基, 2008)에 이름 이니셜이 O. K. 마인 화인 남성은 백인 여성 주디를 여러 차례 곤경에서 구해주고 그녀가 독립할 때까지 물심양면으로 보살피 주지만, 주디가 가정을 꾸릴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육체적 접촉 없이 시종일관한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들 작품에는 몇 가지 유사점이 있다. 첫째, 성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백인 여성에 대해 신비롭거나 음란하거나 문란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적어도 적극적이고 자유롭다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둘째, 이 네 작품에 등장하는 화인 남성은 상대인 백인 여성에 대해 성적인 상상을 하든 육체적인 관계를 갖든 아니면 신체적인 접촉을 삼가하든 간에 어쨌든 모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인물이다. 셋째, 화인 남성이 백인 여성보다 위축되어 있다고 되어있든지 아니면 오히려 주도한다고 되어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전체적으로는 화인 남성의 백인 여성 정복 실패 또는 성공의 형태로 되어있다. 넷째, 각 작품의 서술과 묘사에는 모두 일종의 판타지 요소가 있다. 앞의 두 작품에서 등장하는 화인 남성의 일방적인 성적 상상은 말할 것도 없고, 뒤의 두 작품에서 등장하는 화인 남성 역시 이 점은 마찬가지다. 자오충광이 절륜한 능력과 초인적인 정력으로 루시를 끊임없이 황홀하게 만든다거나, O. K. 마가 수년간 한집에 살면서 주디가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성적 판단과 초인적 절제심으로 그녀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 바로 그렇다.

작품의 수가 적어서 단정하긴 쉽지 않지만 화인 남성 + 백인 여성을 다룬 작품들의 이런 유사성은 과연 어디서 비롯되는 것일까? 특히 백인 남성 + 화인 여성을 다룬 작품과 상당히 대비되는 듯한데 이러한 일종의 유형화는 과연 또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화인 작가들은 아마도 남녀의 성적인 문제를 중심으로 하여 중국과 상당히 다른 북미의 이야기를 흥미롭게 서술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양쪽의 문화적 차이 및 중국 출신으로서 화인의 문화적 도덕적 우월성을 내보이고자 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좀 더 심층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는 백인의 인종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한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이미 말했듯이 백인은 흑인 및 아시아계에 대해 위협감을 느끼면서 이들은 언제든지 순결한 백인 여성을 탐할 가능성이 있는 동물적 본성을 지닌 존재로 이미지화했다. 또 이와 동시에 백인 주도 체제의 공고화를 강화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이들을 순종적이고 유약하며 특히 성적으로도 무능하거나 무지한 존재로 이미지화해왔다. 화인을 예로 들자면 이의 결과 중 한 가지가 화인 여성은 순수하지만 무지한 존재이고 화인 남성은 위협적이지만 왜소한 존재로 이미지화되어 온 것이다. 화인 작가들은 이런 이데올로기를 자신도 모르게 수용하고 이를 작품 속에서 되풀

이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풋하게 이에 대해 불만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불분명하지만 그러한 불만의 표현이 화인 남성 + 백인 여성의 경우에는 왜소화된 화인 남성의 성적 판타지를 펼치면서도 문화적 존재로서 화인의 도덕적 자존심을 유지하는 것이었다.¹⁶⁾ 반면에 백인 남성 + 화인 여성의 경우에는 백인 남성이 입국, 영주권, 경제력 및 일말의 성적 매력을 활용하여 무능하고 유약한 화인 남성으로부터 순수하고 무지한 화인 여성을 빼앗아 간다는 것이었다. 요컨대 백인 남성과 화인 여성의 결합 및 백인 여성과 화인 남성의 결합이 각기 일정한 유형을 보여주면서 서로 선명하게 대비되지만 그 근처에는 백인에 대한 화인의 곤혹스러운 심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6. 다른 소수인종과의 연대 의식

화인과 백인의 남녀 결합은 횡수가 많은 데다가 일종의 유형화 현상을 보인다. 이와 대조적으로 화인과 다른 소수인종의 남녀 결합은 횡수가 적은 데다가 비교적 간단히 처리된다. 예를 들면, 〈女房東〉(嚴歌苓, 2005)에는 라오차이에게 라틴계 여자 친구가 있지만 집으로 데려온 적은 없다라고 하고, 〈晚妝〉(張金翼, 2012)에는 화자의 세 번째 남편이 그녀보다 나이 많고 뚱뚱한 베트남계 여성과 결혼했다고 하는 간단한 언급이 있을 뿐이다. 화인과 다른 소수인종의 남녀 결합에서 이런 서술 분량보다 더욱 주목할 점은 따로 있다. 21세기 북미 화인화문단편소설에서 의도적으로 인종문제를 다룬 작품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런데 그 얼마 되지 않는 작품 중에서 다음 두 편은 화인과 다른 소수인종의 남녀 결합 및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2세를 출발점으로 삼아 인종문제를 다루고 있다.

첫 번째 작품은 〈被遺忘的角落〉(劉慧琴, 2005)이다.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작품의 주인공은 원주민 린이다. 애초 그녀는 무너진 가정과 희망 없는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 원주민 보호지역을 떠나 도시로 흘러들어왔다가 우연히 화인과 원주민의 혼혈인 다니엘을 만나 그의 보살핌을 받게 된다. 그녀 못지않게 힘든 성장기를 보낸 다니엘은 그래도 어렵사리 대학을 졸업하고 회계사로 근무하게 되지만, 부친의 병사와 임신 중인 아내의 교통사고사 및 이로 인한 모친의 정신병 등의 타격으로 이미 마약중독자가 된 상태였다. 새로운 희망을 발견

16) 이들 작품이 가진 유사성은 백인에 의해 화인 남성에게 들쭉거리던 야만적이면서 왜소화된 이미지의 역작용과 관련이 있다. 즉 이들 작품은 백인에 의해 상징 거세된 화인 남성들이 가상의 세계에서 그들의 성적 소망을 성취한다는 일종의 판타지라고 볼 수 있다.

한 두 사람의 이야기는 린이 납치 강간을 당하고 실직까지 하게 되어 그녀마저 마약중독자가 되고, 빈곤 때문에 매음까지 하던 중 결국 마약 과다복용으로 사망하는 참극으로 끝나고 만다. 이처럼 캐나다 사회의 원주민에 대한 편견과 부실한 정책 및 그로 인한 비극을 고발한 이 작품에서 다니엘은 주인공인 린 못지않게 고통스러운 인물, 어쩌면 린의 비극까지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더욱 고통스러운 인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린에게 “나의 할아버지는 쿠리였어. 철도를 놓는. [...] 할머니는 원주민이었는데, 어쨌든 모두 밑바닥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니 누가 누구를 무시할 리는 없었던 거지.”라고 한 말은 상당히 의미심장하다.

두 번째 작품은 〈殺人遊戲〉(笑言, 2009)이다. 화인 여성 선루는 동거하던 남자와 헤어진 후 어린 딸 루시와 함께 살고 있는데, 화인 남성 루닝과 야오하이핑 두 사람이 그녀에게 관심을 보인다. 그녀는 단체 캠핑에 참가했다가 가상의 살인자를 찾아내는 놀이인 ‘살인 게임’에서 공교롭게도 가상의 살인자로 뽑혀 게임에서 능력을 발휘한다. 예컨대 무료 신문의 광고 책임자로 ‘멕시코인 엄마가 육조에서 자기 아이를 익사시켜버린 사건’ 따위의 오락판 기사를 들이밀며 자신의 신분을 과시하던 야오하이핑을 가장 먼저 제거해버린다. 선루는 계속 루닝과 만나면서도 중요한 상황에서는 어쩐지 자꾸만 주저주저한다. 그러던 어느 날 루닝은 선루를 바라다주면서 그녀의 딸이 흑인(혼혈)인 것을 발견하고 놀라서 입조차 다물지 못한다. 며칠 뒤 루닝이 만나기로 한 약속을 전화로 취소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대화한다.

선루가 말했다. [...] 다 이해해요. 당신을 나무랄 순 없죠.

루닝이 [...] 솔직히 말했다. 미안해요. 루시가 흑인인지는 몰랐어요. 내게 편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할 용기가 없네요. 개를 데리고 부모님을 보러 갈 수도 없고 [...] 나 자신도 설득할 수가 없네요.

그만! 제발 그만요! 다 이해해요. 우리 부모님조차 루시를 안 보려고 해요. 이 몇 년 겪을 만큼 겪었어요! 애가 너무 성가시게 만들더라고요! 선루는 여기까지 말하더니 문득 멈추었다. 그리고 곧이어 다시 말했다. 그래도 나는 정말 애를 사랑해요.

소설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 뒤 주말 저녁 선루는 세탁기를 돌리려다가 ‘살인 게임’에서 자신이 가상의 살인자로 뽑힌 종이쪽지를 세탁물의 호주머니에서 발견하고 상념에 잠긴다. 그 순간 육조에 혼자 두고 온 아이가 엄마를 찾는 소리가 들려오는 가운데 이런 구절로 마무리된다. “육조의 물은 갈수록 차오르는데...”

이 화인 여성이 오락판 기사의 ‘멕시코인 엄마’처럼 되었는지 아니면 ‘살인 게임’에서처럼 가상의 살인자로 끝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하지만 도대체 무엇이 이 화인 여성을 이렇게

나 곤혹스러운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일까?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화인에게 내재화된 백인의 인종이데올로기가 가진 강력한 영향력을 보게 된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인종차별, 특히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다. 위 인용문에서 보다시피 루닝과 선루의 양쪽 부모님들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은 흑인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실제로는 그 자신도 편견을 가진 루닝이라든가, 심지어 흑인과 동거하여 아이까지 낳고도 위 인용문에서 암시하듯이 종종 혼란스러운 심리 상태를 보이는 선루가 바로 이 점을 증명하고 있다. 화인과 흑인의 혼혈인 루시가 간단히 흑인으로 간주되는 것, 멕시코인 엄마의 사건이 화인 무료 신문의 오락판에서 다루어지는 것 등 역시 그러하다. 즉, 작가가 예리하게 지적해낸 것처럼, 화인들은 흑인의 피가 한 방울만 섞여 있으면 모두 흑인으로 간주한다는 이른바 '피 한 방울의 법칙'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흑인을 차별한다. 또 백인의 화인 차별에 대해서는 반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바로 그 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하여 자신들 역시 라틴계를 희화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被遺忘的角落〉(劉慧琴, 2005)은 원주민과 관련해서, 〈殺人遊戲〉(笑言, 2009)는 흑인과 관련해서 북미의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후자의 경우 화인에게 내재화된 인종차별적 백인의 인종이데올로기를 예리하게 지적하고 있다. 어떤 작품은 이 두 작품과는 달리 인종 차별 문제를 주요 제재로 삼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의도적으로 인종 차별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할 만하다.

우선 〈路口〉(老搖, 2005)가 그렇다. 앞에서 말했듯이 이 소설의 주인공은 화자 자신이다. 그는 IT업계 프로그래머이자 다종족 문화에 관심이 있는 작가 지망생이다. 작가는 홀수 장에서는 흑인 기타리스트인 로버트 존슨과 관련된 갖가지 전설을 서술하면서, 짝수 장에서는 실직 후 중국으로의 역이주를 하게 된 화자의 이야기를 전개해나간다. 작가는 이런 전체 과정에서 간간히 인종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특히 첫머리에서 흑인의 고난에 관해 길게 서술하고 있다. 다음은 그중 일부이다.

온갖 곡식들이 [...] 일 년 사철 쉽 없이 씨뿌리고 무르익고 거둬들이게 만들면서 흑인을 꼼짝없이 땅에 묶어두었다. 원래 하느님은 자유조차 흑인에게 줄 작정이 아니었지만 그래도 양쪽에서 수많은 백인이 죽은 전쟁 이후 비로소 자유가 흑인의 몸에 주어졌다. 하지만 삼각주 지역에서는 하느님이 여전히 흑인을 온종일 힘겹게 노동하고도 찢어지게 곤궁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의 수확이 많으면 많을수록 마지막에 남는 건 더욱더 적었다. 어떤 이들은 북상의 모험을 감행하여 증기 소리 요란한 북방의 공업에 투신하기도 했다. 그러나 더 많은 사람은 고향을 등지고 떠날 용기가 없어서 하느님이 그들을 벌하던 땅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또 〈洛杉磯發生的故事〉(劉晉平, 2012)가 그렇다. 작가는 화인이 총기 강도 사건을 당하고도 문제가 더욱 커질까 봐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것을 두고 주인공의 생각을 빌어 이렇게 서술한다.

미국 이민자 중에서 화인이 공헌했던 바는 아프리카계와 라틴계 등 다른 소수집단 이민자 못지않다. 그렇지만 주목을 받고 권익을 누린 것은 그들에게 훨씬 못 미친다. 왜 그럴까? 화인이 거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 왜 미국의 법정 공휴일에는 '마틴 루터 킹'의 날이 있는 걸까? 그것은 아프리카계가 수 세대에 걸쳐 쟁취한 것이자 심지어는 목숨까지 바쳐 얻어낸 것이다.

첫 번째 인용문에서 서술한 것처럼 흑인에 대한 착취와 차별은 수백 년에 걸쳐 끊임없이 이어졌다. 흑인은 노예제도 시기는 물론이고 노예해방 이후에도 북부의 저렴한 노동자 또는 남부의 소작농으로서 계속해서 착취되고 차별받았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였다. 소위 '짐 크로우법'(Jim Crow laws)이란 용어로 통칭되었던바, 일상적인 삶의 모든 영역에 걸쳐 각종 합법·비합법적인 흑인 차별과 흑백 분리가 광범위하게 실행되었고, 20세기 중반 흑인의 공민권 인정 이후에도 여전히 흑백 분리가 존재했다. 그런가 하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소위 '피 한 방울의 법칙'이 적용된다든가 국가 폭력에 의한 흑인의 피살 등 유무형의 흑인 차별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이러한 착취와 차별에 대한 흑인의 저항과 항거 역시 끊임없이 이어졌다. 특히 20세기 중후반의 마틴 루터 킹을 상징으로 하는 흑인 민권운동이라든가 21세기의 BLM운동 등 지금도 전개되고 있는 각종 차별 철폐 운동은 흑인 자신의 인권을 회복하고 발언권을 강화하는 데서 끝나지 않았다. 그러한 것들은 북미의 인종차별 문제를 지속적으로 환기시키면서 흑인뿐만 아니라 다른 소수인종의 상황을 개선시키는 데도 크게 기여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두 번째 인용문이 "흑인 녀석들(黑人小夥子)", "흑인놈(黑鬼)" 또는 "흑인(黑人)" 등등의 단어 대신 의도적으로 "아프리카계(非裔)"라는 용어를 쓰면서, 흑인의 노력을 인정하고 흑인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말한 것은 정확한 지적이다. 다만 이와 동시에 흑인의 노력이 가져왔던 나머지 절반의 영향에 대해서는 미처 언급하지 않았다. 즉 소수인종의 일원으로서 화인에 대한 차별 상황이 조금씩 개선되어왔던 것에는 화인 자신의 노력뿐만 아니라 오랜 기간 투쟁해온 흑인의 노력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점을 미처 언급하지 않았던 것이다.

〈殺人遊戲〉(笑言, 2009)에서 흑인에 대한 화인의 편견을 심도 있고 정확하게 지적한 것, 〈路口〉(老搖, 2005)와 〈洛杉磯發生的故事〉(劉晉平, 2012)에서 흑인의 고통을 공감하고 그

들의 투쟁을 인정한 것, 〈被遺忘的角落〉(劉慧琴, 2005)에서 원주민의 참상을 고발한 것 등은 그 자체로 높이 평가해야 한다. 특히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 대다수가 인종문제에 무관심하거나 또는 백인의 인종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이 작품들의 의미는 결코 적지 않다. 이들 작품은 대부분의 작품이 무심결에 백인을 우월화하고 유색 인종을 저열화하며, 화인을 모범소수집단에 위치시키면서 인종의 등급화를 시도하고, 출발지 중국에서의 다수 경험과 문화적 자부심을 고집함으로써 오히려 ‘인종의 삼각 관계’ 이데올로기를 고착시키고 있는 것과는 확연히 다르다. 요컨대 이들 작품은 소수인종으로서 화인과 아시아계를 포함한 다른 소수인종과의 공감대 형성 및 연대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자, 향후 많은 21세기 북미화인화문단편소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이다.

7. 맺음말

다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크게 보면 북미 사회에서 모든 소수인종은 차별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백인의 인종이데올로기가 가진 강력한 영향력과 더불어 현실적인 상황과 조건 때문에 소수인종 간의 연대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다. 백인이 아닌 모든 유색인종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는 같은 인종에 속하는 집단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예를 들면 2014년 뉴욕에서 2인 1조로 순찰 중이던 화인 경찰관 피터 량(Peter Liang)에 의해 비무장의 흑인 남성 아카이 걸리(Akai Gurley)가 총격 피살된 사건의 경우가 그렇다. 피터 량이 과실치사로 기소되자 주로 중국 대륙 출신인 화인들이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를 흔들며 대규모 집회를 열고, 그는 정당한 법 집행을 했으며 백인이 아닌 화인이기 때문에 기소된 것일 뿐이라고 하면서, 일부 소수의 화인도 동참한 BLM운동에 대해 강력한 반감을 표시했다. 또 2014년 이래 일부 아시아계 단체가 백인 단체와 연합하여 ‘소수자 배려 정책(Affirmative action)’ 때문에 대학 입시에서 자신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그렇다. 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이 정책에 대해 한국계 55%, 일본계 60%, 필리핀계 67%, 베트남계 78%, 인도계 52%가 대체로 ‘좋은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중국계 즉 화인 63%는 과반수 이상이 ‘나쁜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¹⁷⁾

17) 이상 두 가지 사안에 관해서는 주로 웬 리우(2020) 참고.

최근 코로나19의 대유행과 중국 책임론, 정치·군사·경제 등 거의 전 영역에 걸친 미중 관계의 악화 등으로 인해 북미의 소위 '내부인'으로서 백인과 흑인은 물론이고 이에 동조하는 일부 소수인종의 사람들까지 화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에 대해 다시금 억압적이 되어가고 있다. 돌이켜보면 북미 백인 주류사회는 화인을 비롯한 아시아계에 대해서 때로는 모범소수 자집단이라며 흑인과는 다른 백인 친화적인 인종으로 대우하고 때로는 흑인과 마찬가지로 저열하고 위험한 인종으로 취급해왔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화인 역시 동일한 이데올로기를 활용해가며 백인과 흑인 및 다른 인종 사이에서 타협적으로 자신의 위치를 구축해왔다. 그러나 이제 이처럼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백인의 인종이데올로기를 내재화하는 방식으로 화인을 자리매김하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다. 특히 최근 들어 대규모로 이주해온 중국 대륙계 화인이 표출하는바 출발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자부심은 이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즉 중국굴기와 더불어 중화인민공화국이 제시한 '중국몽'이라든가 '민족부흥'과 같은 구호들은 그들로 하여금 미국인이나 캐나다인이 아니라 여전히 중국인으로서 사고하고 행동하게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는 기존의 '인종의 삼각관계'라는 이데올로기를 더욱 강화시키고, 백인과 흑인에 의해서가 아니라 화인 스스로 '영원한 이방인'을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현실이 문학에 대해 일방적으로 영향을 주고 무조건적으로 문학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문학은 언제나 현실의 삶에서 출발하되 현재의 삶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 나은 삶이 있음을 상상해내는 이른바 '불온성'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달리 말하자면 문학은 현실을 바탕으로 하되 현실에 영향을 주고 현실을 바꾸어놓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미 화인 작가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은 적지 않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미 이 논문에서 계속 시사해왔던 것처럼 북미 화인 작가들은 의식적이고 능동적으로 인종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특히 백인의 인종이데올로기 내재화에 각별히 유의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북미 화인 작가들은 '중국몽'과 '아메리칸드림'이 가지고 있는 내적 공모 — 세계 어디에서 살든 중국인으로서 문화적 정치적으로 서구인(백인)과 대등하다는 것, 북미에서 교육·직업·소득 수준 등의 성공을 통해 주류사회(백인 주류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것 — 에서 벗어나서, '중국인의 북미 적응'이 아니라 '화인의 북미 표현'을 더욱 강화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즉 북미 화인 작가들은 북미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종 문제를 비롯하여 북미 사회 자체의 중요한 사안에 대해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작품에서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하지 않을까?

<參考文獻>

작품집(1)

- 천하오취안 외 지음, 김혜준 외 옮김, 《동생이면서 동생 아님》, 서울: 지식의만드는지식, 2016.05.
- 葉周 主編, 《洛杉磯華文作家作品選集》, 北京: 作家出版社, 2012.6.
- 融融、陳瑞林 主編, 《一代飛鴻: 北美中國大陸新移民作家短篇小說精選述評》, 北京: 中國文聯出版社, 2008.9 簡體再版.
- 朱文斌、葉周、北奧 主編, 《新世紀美國洛杉磯華文作家作品選》, 合肥: 安徽文藝出版社, 2018.
- 陳浩泉 主編, 《白雪紅楓: 加華作家作品選二集》,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3.
- 陳浩泉 主編, 《楓雨同路: 加華作家小說選》,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9.
- 夏商 主編, 《海外華語小說年展 2019》, 上海: 華東師範大學出版社, 2019.
- 《香港文學》[美華文協小說專集] 第419期, 香港: 香港文學出版社, 2019.11.

작품집(2)

- 劉荒田, 《劉荒田美國筆記》, 石家莊: 河北教育出版社, 2008.7.
- 嚴歌苓, 《花兒與少年》, 北京: 崑崙, 2004.
- 陳瑞林 主編, 《當代海外作家精品選讀》, 長春: 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 2011.
- 陳浩泉 主編, 《楓華文集: 加華作家作品選一集》,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1999.
- 陳浩泉, 《尋找伊甸園》, 溫哥華: 加拿大華裔作家協會, 2004.
- 黃宗之、北奧 主編, 《美國洛杉磯華文作家協會三十周年紀念文集》, West Vancouver: 北美科發出版集團, 2022.1.

단행본

- 김애주, 《생성의 도시학: 아시아계 미국문학과 메트로폴리타니즘》, 서울: 신아사, 2016.
- 쇼-링 신시아 윙, 스티븐 H. 수미다 편집, 김애주 외 옮김,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길잡이》, 서울: 한국문화사, 2003.
- 윤성호, 《언더독의 글쓰기: 아시아계 미국문학의 지형도》,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12.

- 장태한, 《미국의 흑인 그들은 누구인가》,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2012.
- 혼다 소조 저, 김효진 역, 《미국 흑인의 역사 — 진정한 해방을 향한 발자취》, 서울: 에이케이커뮤니케이션즈, 2021.9.
- 湯俏, 《北美新移民文學30年》, 北京: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20.

논문

- 신문수, 〈미국 흑인 타자화 역사〉, 《미국학》 제29집, 2006.12, 277-316쪽.
- 웬 리우, 〈공모와 저항 — “흑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 운동에서 아시아계 미국인의 신체 정치〉, 《문화연구》 제8권 2호, 2020.8, 93-128쪽.
- 최수경, 〈한국인의 미국 이민 100년사: 평가와 전망〉, 《사회과학연구》 제22권 1호, 2011.1, 151-168쪽.
- 蓋建平, 〈美華文學研究中的種族意識〉, 《世界華文文學論壇》 2017年第1期, 2017, 49-54頁.
- 尹曉煌, 〈美國華語文學之歷史與現狀〉, 《華僑華人歷史研究》 2006年第3期, 2006, 1-11頁.
- 尹曉煌, 〈種族·階級·性別 — 論美國華文文學的主題和素材〉, 《華文文學》 2010年第3期, 2010, 27-52頁.
- 陳夢圓, 《加拿大新移民華文小說中的混血兒形象研究》, 暨南大學碩士論文, 2014.
- 肖畫, 〈與華人有關的三樁懸案—美國少數族裔的性別、種族與階級〉, 《華文文學》 2014年第4期, 2014, 98-105頁.
- 豐雲, 〈新世紀以來的新移民小說發展芻議〉, 《山東師範大學學報(社會科學版)》 2021年第2期, 2021, 53-70頁.
- 何紫珊, 《加拿大新移民華文小說中的少數族群形象研究》, 暨南大學碩士論文, 2013.
- 黃秀玲, 〈黃與黑: 美國華文作家筆下的華人與黑人〉, 《中外文學》 第34卷4期, 2005.09, 15-53頁.
- Kim, Claire Jean, “The Racial Triangulation of Asian Americans,” *Politics and Society* 27.1, 1999, pp. 5-38.

<Abstract>

The Interests and Expressions in Racial Matters
in 21C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Short Stories

Kim, Hye-Joon

The following three things are evident in 21C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short stories. First, there are not so many works featuring non-Chinese races. Second, the proportion of works in which non-Chinese races appear as major characters is very low. Third, there are wide gaps in appearance frequency or role importance by race.

In 21C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short stories, Whites characters are usually described as people with authority or power, or people with status or wealth to exercise it. On the other hand, POC characters are likely to belong to the lower social classes, and are often problematic people that are rarely seen in Whites characters. Moreover, there is discrimination among POC characters, so the attitude toward Asian characters differs from that toward Blacks or Latinos characters.

In 21C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short stories, the writers recognize the initiative of Whites and try to win their approval. However, the writers sometimes implicitly express their dissatisfaction with what is contrary to expectations in a kind of distorted way. It is mainly expressed in two ways. First, it is described that Whites men loot Chinese women from Chinese men, but in the end, it cannot be an ideal combination. Second, it is described that Chinese men are attracted to the sexual seductions of Whites women, but eventually morally restrain themselves, and fantasy elements are strongly revealed in the description.

Most of the 21C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short stories internalize the racial ideology of Whites. It makes Whites superior and POC inferior, places the overseas Chinese in a model minority group, and attempts to grade by race. It rather sticks to the ideology of 'racial triangulation' by insisting on the experience and cultural pride of the overseas Chinese, who were the majority in China. However, some works showed the possibility of forming a consensus and solidarity with other minorities by pointing out overseas Chinese's

prejudice against Blacks and accusing the plight of indigenous people.

Key words: North American Chinese-language short stories,
grading by race, racial ideology, racial triangulation,
overseas Chinese, Whites, Blacks, Latinos, POC

투고(접수)일	2022년 11월 09일	심사일	2022년 11월 14일
수정일	2022년 11월 25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01일